

# 제111회

5월 8일

- … 본회가 주최한 ○
- … 제111회 발명교실 ○
- … 이 지난 5월 8일 발 ○
- … 명장려관 연구실에 ○
- … 서 개최됐다. 매일 ○
- … 둘째 토요일 오후 1 ○
- … 시 30분에 개최되 ○
- … 는 발명교실이 이번 ○
- … 달에는 발명진흥심 ○
- … 포지움과 함께 진행 ○
- … 되었다. 이날 발명 ○
- … 교실에서는 서울산 ○

## 무동력 자동콩나물 재배기

### 두레단기업 박영근 사장

「기계작동의 원리를 이용해 생활상의 불편함을 제거해가는 것이 제 아이디어의 본질입니다」

아이디어상품 생산업체인 두레단 기업의 박 사장의 말이다.

박사장이 발명을 하기 위하여 걸어온 길은 꽤나 특이하다. 중학생때부터 압력밥솥이니 전기칫솔 등의 아이디어 제품을 구상하기 시작했으며, 서울 S대 기계학과를 졸업한 후 사업가로서의 꿈을 다져나가고자 많은 경험을 원했다.

비료회사·전자회사·중공

업회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였다. 그 후, 레스토랑과 건설분야에도 뛰어들어 많은 것들을 섭렵하였다. 그러다가 그가 본격적으로 발명을 시작하게 된 것은 91년부터였다. 이때 만든 첫 작품이 바로 「나물시루」였다.

나물시루를 만들게 된 이유는 옛어른들의 정성스러움을 배우고 요즘과 같은 공해시대속에서 무공해 음식을 식탁에 올리고자 해서였다. 사실 우리의 어른들은 공장에서 대량생산된 콩나물을 돈주고 사서 음식을 만들어 먹지는 않았다. 한알 두알씩 썩은 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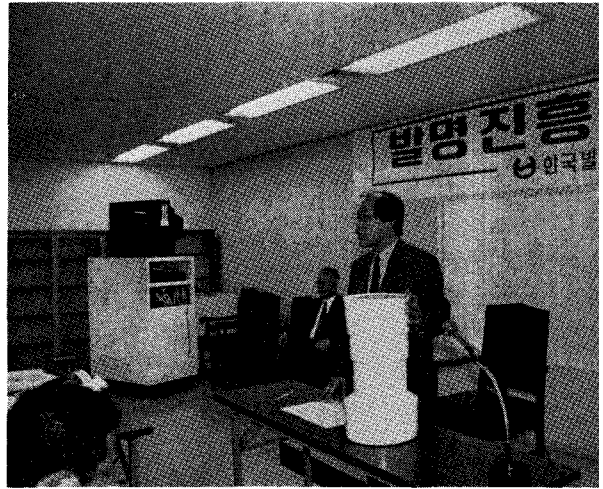
을 골라내고 집에서 손수 기르며 온갖 정성을 들여 재배해서 식탁에 올리곤 하였다.

박사장은 어른들의 음식에 대한 정성스러움뿐만 아니라 나라사랑하는 마음도 생각했다. 요즘의 아이들은 소위 햄버거 세대다. 우리의 고유 음식인 김치나 된장, 고추장, 콩나물보다도 치즈나 햄을 더 좋아한다. 박사장은 이것이 못마땅한 것이었다. 아이들에게도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간직하고 계시는 고향이나 시골에 대한 향수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다. 이러한 마음 가운데서 나물시루가 탄생하게 되었다.

# 發明教室

## 成功事例 등 發表

- ... 邑대학 윤종학 교수 ...○
- ... 의 주제발표에 이어 ...○
- ... 두레단기업대표인 ...○
- ... 박영근 시장의 성공 ...○
- ... 사례 발표와 본회 ...○
- ... 김관형 상근이사의 ...○
- ... 발명의 발상기업에 ...○
- ... 대한 강의와 토론이 ...○
- ... 있었다. 발명가의 ...○
- ... 성공 사례를 간추려 ...○
- ... 소개한다. ...○
- ... <이두성 記> ...○



그가 만든 나물시루는 크게 3가지로 기능이 나누어지는데 물시계원리·오투기원리·살수원리가 그것이다. 살수장치는 조립식 구조 중 맨 위에 위치하여 일정하게 물을 떨어뜨려 준다. 그러면 그 물은 아래층에 모여 있다가 일정량에 도달하면 오투기원리로 만들어진 그릇이 물을 쏟아 붓고는 원위치로 돌아온다.

살수그릇은 오투기그릇이 살수그릇의 한쪽에만 집중적으로 물을 쏟아놓기 때문에 이를 끌고루 살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살수그릇의 바닥에 구멍의 크기와 위치를 알맞게 만들어 놓았다.

나물시루를 다단으로 조립한 것은 시루에 씨앗을 앉힐 때 하루 이틀 정도의 시차를 두고 재배함으로써 연속재배를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였다. 제일 아랫단은 씨앗을 받아시키고 제일 윗단은 많이

자란 나물이므로 산소공급을 원활히 하도록 하여 나물의 싱싱함을 유지하도록 했다. 중간의 단에서는 성장기간 중 산소공급을 억제하여 산소호흡에 의한 양분의 산화 손실을 막아 나물의 양분을 최대한 보존하도록 하였으니, 이는 사람의 손을 적게 닿도록 하여 번거로움을 줄였으며, 물을 자주 주어야 하는 성가심도 없게 하여 모든 면에서 경제적이라 하겠다.

무엇보다도 특이한 것은 우리 조상의 발명품인 측우기와 물시계의 원리를 응용한 훌륭한 발명품이라 하겠다.

박사장이 이런 훌륭한 발명품을 만들기까지는 그동안 여러 회사를 거치면서 쌓은 경험이 큰 원동력을 이루었다. 전기를 이용하지 않고 얼른 보아서는 무동력으로 볼 수 있는 중력에너지의 기하학적인 이용으로 자동화를 가능케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물시

계그릇은 불구멍의 구성을 물리적으로 안배함으로써 수압의 차이에 따른 살수시간차를 극복하였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하겠다.

박사장은 「이 상품은 본격적인 사업을 위한 서막에 불과합니다」라고 밝힌다. 제품 판매후 스님들과 일식집에서 자주 찾고 있다는 이 제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그는 대전 EXPO에도 공식 참가하는 등 분주히 뛰어다니고 있다.

91년에는 본회에서 주관한 우수발명품 전시회에서 금상을 수상하였고 미국에도 출원하여 특허 등록까지 획득했다. 박사장의 발명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세우는 비누곽, 플라스틱 수도꼭지, 접시형 가습기 등 많은 것을 만들었다.

「큰돈을 벌면 한국인의 기상을 높이기 위한 교육사업을 펼쳐 나가겠다」는 그의 꿈이 꼭 실현되어지길 바란다. <♣>